

#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

방경숙<sup>1</sup> · 권미경<sup>2</sup> · 최미영<sup>3</sup> · 허보윤<sup>4</sup> · 정소피아지혜<sup>5</sup>

<sup>1</sup>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sup>2</sup>관동대학교 간호학과, <sup>3</sup>청주대학교 간호학과, <sup>4</sup>존스홉킨스대학, <sup>5</sup>아이오와대학

##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Mothers of Children in this Age Group and Graduate Students in Nursing

Kyung-Sook Bang<sup>1</sup>, Mi-Kyung Kwon<sup>2</sup>, Mi-Young Choi<sup>3</sup>, Bo-Yun Huh<sup>4</sup>, Sophia-Jihey Chung<sup>5</sup>

<sup>1</sup>College of Nursing·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sup>4</sup>School of Nursing,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sup>5</sup>College of Nursing, The University of Iowa, Iowa, US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as perceived by moth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graduate students in nursing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health promotion in early childhood.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research study. The participants were 91 moth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115 graduate students in nursing. **Results:** The comparisons showed that graduate students in nursing reported highe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than did the mothe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highest score was in the category of safety. **Conclusion:** Providing information by nurses is necessary to promote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moth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to develop effective programs for these mothers who want to promote goo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eir children.

**Key words:** Early childhood, Health promotion, Health behavior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는 만 1개월부터 3세까지의 아동으로 생의 주기 중 발육이 가장 왕성하고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결정적 발달시기로서, 이 시기에 행해진 건강증진행위는 이후 아동기의 성장발달이나 건강뿐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과 건강수준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Jeong, 2009; Shin, 2010).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4명으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MHW & PPPK], 2010),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인적 자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국민의 평생 건강 확보를 위해 생애초기인 영유아기부터 건강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Hwang, 2008).

그러나 영유아는 아직 스스로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행동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직접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실천 행위를 조절할 수 없다(Mattheus, 2010). 따라서 어떠한 환경적 요인보다도 부모의 역할, 특히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Kwon, Bang, Kim, & Ahn, 2006).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아동의 건강관리자로서 어머니가 행하는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좋은 환경의 밑거름이 된다

**주요어:** 영유아, 건강 증진, 건강 행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Mi-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298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360-764, Korea

Tel: +82-43-229-7983 Fax: +82-43-229-8969 E-mail: myb98@cju.ac.kr

투고일: 2012년 1월 3일 / 1차수정: 2012년 3월 30일 / 2차수정: 2012년 4월 13일 / 3차수정: 2012년 4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24일

는 측면에서, 간호사는 어머니가 아동건강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증진행위란 안녕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건강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화된 행동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잠재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된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01). 특히 생애초기인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전략은 부적절한 건강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후 중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건강행위는 영아의 건강생활습관형성 모델이 되며 건강수준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Shin, 2010), 사전에 건강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건강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의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사전에 교육을 받은 어머니일수록 영아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raçam, 2006).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자로서 간호사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를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중재요인이 될 수 있다(Paik & Kim, 2000).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사이면서 간호 전문영역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은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있지만,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 요구를 인식하여 중재를 해야 할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제 일반 영유아 어머니와 비교하여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중요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 실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

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어머니와 전국의 9개 대학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독립표본 t-test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에서 검정력 .8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그룹별로 64명으로 총 128명이 필요했으나 탈락자를 고려하여 편의추출에 의해 영유아 어머니 91명,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115명 중 20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6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머니와 서울, 경기, 강릉, 울산 등에 소재한 9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곧바로 회수하였다.

### 연구 도구

####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Kim, Kang, Yun과 Kwon (2007)이 개발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도구를 토대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35문항에 대해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도구는 안전 6문항, 정서적지지/노력 7문항, 활동/휴식 4문항, 질병 예방 5문항, 의복 착용 3문항, 영양 5문항, 청결/위생 5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매우 중요하다'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등(2007)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부영역별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안전 .80, 정서적지지/노력 .85, 활동/휴식 .76, 질병 예방 .79, 의복 착용 .74, 영양 .80, 청결/위생 .82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의 차이 비교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다.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차이

연구 대상자는 총 206명으로 영유아 어머니 91명(44.2%),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115명(55.8%)이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영유아 어머니 34.2세,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33.6세였다. 영유아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 85.7%, 월수입은 200-400만 원이 46명(50.6%)을 차지하였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6명(61.5%)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2명(57.1%), 여아가 39명(42.9%)이었다.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8명(5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

균 연령은 24.6개월이었다.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85명(73.9%), 박사과정 30명(26.1%)이었으며 아동과 모성 전공이 49명(42.6%), 그 외 전공이 66명(57.4%)로 아동과 모성 이외의 전공이 약간 많았고, 아동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63명(55.8%)을 차지하였다. 결혼 여부는 미혼 52명(45.2%), 기혼 63명(54.8%)으로 기혼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49명(42.6%)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최종학력( $t=-2.072, p=.041$ ), 자녀의 출생순위( $F=3.239, p=.044$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의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에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와 셋째 이상인 경우가 둘째인 경우보다 높았다.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특성에 따른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Mother and Nursing Graduate Student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 SD	Health promotion behavior			
			M ± SD	t or F	p	
Mother	Age (year)	34.2 ± 3.7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3 (14.3)	3.07 ± 0.35	-2.072	.041
		College or above	78 (85.7)	3.34 ± 0.45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10 (11.0)	3.31 ± 0.40	1.617	.191
		200-299	17 (18.7)	3.20 ± 0.40		
		300-399	29 (31.9)	3.21 ± 0.49		
		≥ 400	35 (38.5)	3.42 ± 0.43		
	Employment	Employed	56 (61.5)	3.27 ± 0.47	-0.940	.350
		Unemployed	35 (38.5)	3.36 ± 0.41		
	Number of child	1	36 (39.6)	3.35 ± 0.46	0.384	.682
		2	39 (42.9)	3.26 ± 0.46		
		3 or above	16 (17.6)	3.30 ± 0.36		
	Gender of child	Male	52 (57.1)	3.28 ± 0.44	-0.595	.553
Female		39 (42.9)	3.33 ± 0.46			
Birth order	1st	48 (52.7)	3.39 ± 0.48	3.239	.044	
	2nd	32 (35.2)	3.14 ± 0.38			
	3rd or above	11 (12.1)	3.35 ± 0.38			
	Age of child (month)	24.6 ± 9.8				
Graduate student in nursing	Age (year)	33.6 ± 7.2				
	The graduate course	Master's course	85 (73.9)	3.51 ± 0.33	0.169	.866
		Doctoral course	30 (26.1)	3.50 ± 0.28		
	Major	Pediatric and maternity nursing	49 (42.6)	3.50 ± 0.28	-0.224	.823
		The rest (Adult health nursing, psychiatric nursing, et al.)	66 (57.4)	3.52 ± 0.34		
	Register for subject of pediatric nursing*	Yes	63 (55.8)	3.53 ± 0.28	0.640	.523
		No	50 (44.2)	3.49 ± 0.35		
	Marital status	Single	52 (45.2)	3.50 ± 0.30	-0.351	.727
		Married	63 (54.8)			
	Children	Yes	49 (42.6)	3.52 ± 0.33	1.107	.271
No		66 (57.4)				

\*Missing data excluded.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 비교**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 평균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안전, 의복착용, 청결/위생, 활동/휴식, 질병예방, 정서적 지지/노력, 영양 영역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안전, 정서적 지지/노력, 질병예방, 청결/위생, 의복착용, 활동/휴식, 영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의 7개 하위영역과 문항에서 모두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영유아 어머니 보다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을 각 영역별로 따라 문항별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안전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집에서 담배연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5점, ‘위험한 것에 대해 알려준다.’ 3.48점, ‘장난감을 살 때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 3.4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집에서 담배연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88점,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3.80점, ‘위험한 것에 대해 알려준다.’ 3.61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두 그룹 모두 ‘자동차에 탈 때는 앞좌석에 태우지 않는다.’를 가장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정서적 지지/노력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사랑의 표현으로 자주 안아준다.’ 3.63점, ‘아이의 피부를 쓰다듬어 준다.’ 3.38점, ‘가능한 한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한다.’ 3.3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사랑의 표현으로 자주 안아준다.’ 3.90점, ‘젓이나 우유를 먹일 때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맞추고 웃어준다.’ 3.77점,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한다.’ 3.76점의 순이었다.

활동/휴식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가능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3.38점, ‘적당히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한다.’ 3.32점, ‘낮잠을 재운다.’ 3.25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적당히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한다.’ 3.54점, ‘가능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3.53점,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실외로 나간다.’ 3.4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예방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예방접종을 적정시기에 맞게 맞춘다.’ 3.53점, ‘감기나 전염병을 앓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게 한다.’ 3.36점,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3.2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예방접종을 적정시기에 맞게 맞춘다.’ 3.80점, ‘감기나 전염병을 앓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게 한다.’ 3.55점, ‘방 안의 공기를 환기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3.46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의복착용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 문항의 순서가 동일하였으며,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각각 ‘날씨가 알맞은 옷을 입힌다.’ 3.38점과 3.61점, ‘옷은 활동하기에 편한 옷을 입힌다.’ 3.37점과 3.40점, ‘아이 옷은 부드러운 면으로 된 것으로 입힌다.’ 3.23점과 3.38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 영역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의 순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되도록 인스턴트식품을 먹이지 않는다.’ 3.36점, ‘가능한 한 이유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인다.’ 3.18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3.1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모유수유를 한다(하였다).’ 3.59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3.46점, ‘되도록 인스턴트식품을 먹이지 않는다.’ 3.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결/위생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다.’ 3.42점, ‘아이가 쓰는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3.37점, ‘규칙적으로 치아를 닦는다.’ 3.35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외출 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도록 한다.’ 3.63점, ‘규칙적으로 치아를 닦는다.’ 3.57점,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다.’ 3.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s of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between Mother and Nursing Graduate Student (N=206)

Variables	Mother (n=91)	Graduate student in nursing (n=115)	t	p
	Mean ± SD	Mean ± SD		
Safety	3.40 ± 0.47	3.64 ± 0.34	3.976	<.001
Emotional support/endeavor	3.29 ± 0.49	3.62 ± 0.31	5.536	<.001
Activity/rest	3.30 ± 0.49	3.44 ± 0.38	2.304	.022
Disease prevention	3.30 ± 0.45	3.51 ± 0.36	3.597	<.001
Appropriate clothing	3.33 ± 0.49	3.46 ± 0.44	2.062	.040
Nutrition	3.16 ± 0.57	3.32 ± 0.44	2.157	.032
Cleanness/hygiene	3.31 ± 0.49	3.48 ± 0.42	2.680	.008
Total	3.30 ± 0.44	3.51 ± 0.32	3.806	<.001

**논 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행위 중 영유아의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영유아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양육이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인식만을 확인했을 뿐, 영유아 어머니들의 조기 중재방안 모색을 위해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건강관리자인 간호

**Table 3.**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in Categorical Dimensions (N=206)

Variables	Rank	Mother (n=91)		Graduate student in nursing (n=115)	
		Item	M ± SD	Item	M ± SD
Safety	1	At home, my child isn't exposed to tobacco smoke or harmful substance.	3.55 ± 0.64	At home, my child isn't exposed to tobacco smoke or harmful substance.	3.88 ± 0.33
	2	I inform my child of dangerous places.	3.48 ± 0.58	I keep dangerous stuffs out of reach of my child.	3.80 ± 0.40
	3	I think of safety issues when buying toys.	3.46 ± 0.56	I inform my child of dangerous places.	3.61 ± 0.49
	4	I keep dangerous stuffs out of reach of my child.	3.44 ± 0.76	I take my child on a safe seat in a car.	3.51 ± 0.57
	5	I take my child on a safe seat in a car.	3.29 ± 0.65	I think of safety issues when buying toys.	3.51 ± 0.54
	6	I don't take my child on the front seat in a car.	3.2 ± 0.86	I don't take my child on the front seat in a car.	3.51 ± 0.58
	Emotional support/ endeavor	1	I often hug my child as an expression of love.	3.63 ± 0.57	I often hug my child as an expression of love.
2		I caress my child's skin.	3.38 ± 0.55	When breast-feeding or bottle-feeding my child, I caress my child while making eye contact with a smile.	3.77 ± 0.43
3		I endeavor to spend my time with my child as much as possible.	3.38 ± 0.65	I talk much with my child.	3.76 ± 0.45
4		I provide my child with toys in line with the child's age.	3.26 ± 0.65	I caress my child's skin.	3.73 ± 0.46
5		I talk much with my child.	3.25 ± 0.78	I endeavor to spend my time with my child as much as possible.	3.68 ± 0.49
6		I stay in touch with book or media regarding my child's health.	3.11 ± 0.74	I provide my child with toys in line with the child's age.	3.38 ± 0.56
7		When breast-feeding or bottle-feeding my child, I caress my child while making eye contact with a smile.	3.01 ± 0.69	I stay in touch with book or media regarding my child's health.	3.11 ± 0.59
Activity/ rest	1	If possible, I give my child the chance to play with friends.	3.38 ± 0.61	I lead my child to properly move and act.	3.54 ± 0.50
	2	I lead my child to properly move and act.	3.32 ± 0.61	If possible, I give my child the chance to play with friends.	3.53 ± 0.50
	3	I let my child take a nap.	3.25 ± 0.59	When the weather is fine, I go out with my child.	3.46 ± 0.53
	4	When the weather is fine, I go out with my child.	3.24 ± 0.67	I let my child take a nap.	3.23 ± 0.55
Disease prevention	1	I follow a timely protective inoculation for my child.	3.53 ± 0.56	I follow a timely protective inoculation for my child.	3.80 ± 0.40
	2	I hinder my child from contacting patients with a cold or an infectious disease.	3.36 ± 0.57	I hinder my child from contacting patients with a cold or an infectious disease.	3.55 ± 0.53
	3	I warm my child's belly.	3.25 ± 0.59	My child's room is well aired and ventilated.	3.46 ± 0.53
	4	My child's room is well aired and ventilated.	3.25 ± 0.63	I warm my child's belly.	3.41 ± 0.51
	5	My child goes to sleep and wakes up at a particular time.	3.09 ± 0.72	My child goes to sleep and wakes up at a particular time.	3.31 ± 0.55
Appropriate clothing	1	I let my child wear clothes suitable for weather conditions.	3.38 ± 0.53	I let my child wear clothes suitable for weather conditions.	3.61 ± 0.51
	2	I let my child wear clothes readily available for activity.	3.37 ± 0.64	I let my child wear clothes readily available for activity.	3.40 ± 0.56
	3	My child wears clothes made from soft cotton.	3.23 ± 0.63	My child wears clothes made from soft cotton.	3.38 ± 0.57
Nutrition	1	If possible, I don't feed my child with instant food.	3.36 ± 0.59	I breastfeed (breastfed) my child.	3.59 ± 0.58
	2	If possible, I feed my child with home-made weaning food.	3.18 ± 0.75	I feed my child with an evenly balanced combination of foods.	3.46 ± 0.52
	3	I feed my child with an evenly balanced combination of foods.	3.16 ± 0.67	If possible, I don't feed my child with instant food.	3.30 ± 0.58
	4	I don't give sweet food or beverage for my child's snack.	3.12 ± 0.68	If possible, I feed my child with home-made weaning food.	3.13 ± 0.61
	5	I breastfeed (breastfed) my child.	3.00 ± 1.03	I don't give sweet food or beverage for my child's snack.	3.12 ± 0.61
Clean-ness/ hygiene	1	My child washes hands before eating a meal.	3.42 ± 0.60	My child washes hands when coming home from outside.	3.63 ± 0.54
	2	My child keeps his or her own stuffs neat and tidy.	3.37 ± 0.66	My child brushes teeth on a regular basis.	3.57 ± 0.52
	3	My child brushes teeth on a regular basis.	3.35 ± 0.60	My child washes hands before eating a meal.	3.51 ± 0.54
	4	My child periodically receives a dental check-up.	3.33 ± 0.63	My child periodically receives a dental check-up.	3.37 ± 0.54
	5	My child washes hands when coming home from outside.	3.10 ± 0.79	My child keeps his or her own stuffs neat and tidy.	3.33 ± 0.51

학 전공 대학원생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과 영유아 어머니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비교해봄으로써 효율적인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근

거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영유아 어머니보다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경우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면서 건강증진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 습관의 실천이 중요함을 자각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가 되면 부모역

할 기술은 자연적으로 생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견해 (Berger, 1995)와는 달리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과 영유아 어머니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아닌 경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 영유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과 수행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영유아 어머니들의 필요와 인식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교육 및 지원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영유아 어머니 3.30점,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은 3.5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에 대해 만 3-36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202명의 어머니(Jeong, 2009)의 연구결과 3.21점과 0-6세의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Shin, 2010)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3.2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실질적인 행위의 실천으로 이끌어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부모에게 양육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영유아 부모들에게 올바른 양육태도와 자녀의 건강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Han, Kwon, Bang, & Kim, 2001).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영역은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모두 안전 영역으로 일치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 인식에 대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제한이 있으나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대한 Jeong (2009)과 Shin (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의복 착용 영역에 대한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수행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니어서 신중한 해석을 요하지만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영역과 실제 수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영역과 실제 수행이 미흡한 영역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정서적 지지/노력인 반면 어머니들은 의복착용이나 활동/휴식 등 신체적 건강관리에 보다 더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건강증진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영유아에 대한 정서

적 지지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원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이다(Kim et al., 2007).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정서적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 요인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영역에 따라 문항별로 살펴보면 안전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두 그룹 모두 '자동차에 탈 때는 앞좌석에 태우지 않는다', '자동차에 탈 때는 안전의자에 태운다'를 낮게 인식하였으며,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조사한 Jeong (2009)의 연구에서도 이 두 문항의 실천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착용하고 승차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으나,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이 9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아를 둔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착용률이 10%대에 불과하다(National Police Agency [NPA], 2011). 따라서 부모의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서적 지지/노력 영역에서는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사랑의 표현으로 자주 안아준다'와 '젖이나 우유를 먹일 때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맞추어 웃어준다'를 같이 높게 인식한 반면,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사랑의 표현으로 자주 안아준다'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젖이나 우유를 먹일 때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맞추어 웃어준다'를 낮게 인식한 결과를 미루어 아이의 반응성을 고려한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모두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책이나 대중매체를 접한다' 문항을 가장 덜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는 Shin (2010)의 연구에서 실천이 가장 낮은 문항이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습득한 육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보다는 어머니의 개별화된 요구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고려한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 두 그룹 모두 활동/휴식 영역에서는 '낮잠을 재운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야외로 나간다'와 질병예방 영역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한다'를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Shin (2010)의 연구에서도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기는 모든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과거 건강관련행위가 건강증

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Jeon & Kim, 2010)는 측면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활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조기의 수면습관에 대한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착용 영역의 3문항은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순서가 같았다. 영양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경우 '모유수유 하기'를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실천 행위를 강화하는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결/위생 영역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순위에 차이는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문항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Jeong (2009)과 Shin (2010)의 연구에서도 실천정도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2008년 건강검진 통계연보(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2010)에 따르면 전국의 영유아 3.3%만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았으며, 18개월 아동의 63.4%만이 양호한 구강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인생 전반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으므로 (Peterson-Sweeney & Stevens, 2010), 영유아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과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강좌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양육태도가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Ahn & Song, 2007; Lee, 2003)를 토대로, 향후에는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강의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경우 간호사 특성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간호사 재직 여부,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전공별 인식 비교를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 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유아 어머니보다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그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유아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영유아 어머니와 간호대학원생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안전이었으나 다음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은 정서적지지/노력을 중시하는 반면 어머니들은 이에 대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착용이나 청결/위생, 활동/휴식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영유아의 정서적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정서적지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hn, H. J., & Song, S. M. (2007). The difference in university students' beliefs of appropriate educa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s before and after pre-parents educ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1119-1130.
- Berger, E. H. (1995). *Parents as partners in education: Families and school working together*. NJ: A simmion & Schuster company. Prentice-Hall Inc.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Han, K. J., Kwon, M. K., Bang, K. S., & Kim, J. S. (2001).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arent role education program I - Focusing on the six-months result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7, 96-107.
- Hwang, N. M. (2008). Future direction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for healthy start in life. *Health-welfare Policy Forum*, 141, 5-19.
- Jeon, M. S., & Kim, H. O. (2010).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obese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264-276.
- Jeong, N. O. (2009).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5, 236-244.
- Karaçam, Z. (2006). Factors affecting exclusive breastfeeding of healthy babies aged zero to four months: A community-based study of Turkish wome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 341-349.
- Kim, S. J., Kang, K. A., Yun, J., & Kwon, O. J. (2007). Development of tool to measure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21-32.
- Kwon, M. K., Bang, K. S., Kim, N. S., & Ahn, H. Y. (2006).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 by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 170-179.
- Lee, B. L. (200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133-152.
- Mattheus, D. J. (2010). Vulnerability related to oral health in early childhood: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6, 2116-2125.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2010). *State of world population*. Seoul: Author.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2008 National physical examination utatistical year book*. Seoul: Author.
- National Police Agency. (n. d). *Kids love, from child safety equipment*. Retrieved December 6, 2011, from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87458>
- Paik, Y. C., & Kim, I. S. (2000). A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2, 477-489.

Pender, N. J., Murdaugh, C. L., & Parson, M. A. (2001).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Peterson-Sweeney, K., & Stevens, J. (2010). Optimizing the health of infants and children: Their oral health cou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5*, 244-249.

Shin, S. S. (2010). The influence and characteristics of a mother's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towards the promotion of children's health issu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 175-193.